



전주비전대, LINC+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전주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2021 LINC+ 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자동차로봇학과 '알고리즘'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영상 심사로 진행 각 대학에서 총 30개 팀이 참가해 각 팀의 작품발표 영상을 산업체 인사를 비롯한 전문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대상을 차지한 '알고리즘' 팀의 타이머 내장형 차량 신호등(지도교수 김현식, 참여학생 김원준 외 11명)은 차량 주행 시 차량용 교통 신호등의 신호가 언제 바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보행자 신호등처럼 타이머를 설치한 작품으로, 급가속 및 부주의로 인한 출발 지연 등을 억제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 및 피로물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인후3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건강 반찬 나눔

전주시 인후3동(동장 김은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해)는 지난 12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플러스! 건강 더한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회원들은 스스로 조리가 어려운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배부해 주며, 계란말이, 멸치볶음 등 반찬 4종을 정성껏 조리해 전달했다.

정진해 위원장은 "위원들이 손수 만든 반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의 안부를 살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인월면, 취약계층에 난방유 지원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날 15일부터 난방유 등 유류쿠폰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37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와 인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으로, 기밀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난방유 쿠폰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군마을의 강모 어르신은 "날이 추워지며 난방비가 걱정되었는데 면의 난방유 지원으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따뜻하며 사람이 넘치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도서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 운영

임실도서관(관장 옥경중)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에 걸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수중학교를 비롯한 8개교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바리스타 체험, ▲한식 조리사 체험, ▲광고 기획자(카피라이터) 체험 등이다.

옥경중 관장은 "이번 활동으로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경제혁신포럼 성료

한국인지과학산업협 · IT융합산업진흥원 공동 주최

남원경제발전협의회(회장 박준길, 이하 남경협)는 지난 13일, 춘향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사)한국IT융합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2030 남원경제혁신포럼이 성황리에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남원 혁신의 길, 미래를 잇는 하늘길"이라는 주제로 4개 세션으로 나뉘어 남원 항공산업의 현황과 도시항공교통(UAM)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유용성,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첫 발제자인 김상호 교수는 "드론의 신도시 생태계"를 주제로 운용자와 무인인체제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내용과 드론 기술의 도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으며, 권희준 박사는 "차세대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의 가교 UAM" 주제로 산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모델과 미래 드론 운송 관제 시스템



연계 과정을 소개했다.

또한 한양항공 조병승 대표는 "경비행기 산업과 항공 UAM 미래발전" 주제의 내용으로 경비행기 관련 산업 기반과 항공협력 개발의 이점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권희준 박사

가 진행을 맡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져 김병구 전문위원과 유영현 교수가 참여해 남원항공산업 발전 가능성과 관련산업 유치 및 관련학과 개설 등 남원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이날 축사에서 남경협 최경식 고문(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내 13조원 규모의 항공·UAM분야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남원도 차세대 드론·UAM산업을 통해 교육, 산업, 관광, 농축산 분야와 유관연구기관, 강소기업체 유치 등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도리 사회사업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전주시 완산동 주민센터(동장 박종진)는 지난 13일 효도리 사회사업단과 함께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연탄 나눔은 완산동과 동서동, 팔복동 3개 동 소외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가구당 300장씩 총 36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주민센터는 이후에도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해나갈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장은 "세 병원의 핵심가치인 나눔이 봉사를 통해 더욱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졌으면 한다"라며,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도리 사회사업단은 올해 2월 효사랑전주·효



사랑가족·가족사랑요양병원이 모인 복지단체로 가정 클린봉사, 사랑나눔바자회, 외플나눔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임소정·박수진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임소정(18학번), 박수진(18학번) 학생이 2021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종 결선에서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참가, 전주대 학생들이 주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학생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뤄 대상을 차지했다.

팀 지도를 맡은 이경재 교수는 "학생들이 메타버스와 아바타를 이용해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참신한 주제를 선정



하고, 수십 번에 걸쳐 발표 자료를 수정하며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발표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결과"라며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준비한 학생들에게 위로와 고마움을 표했다.

임소정 학생은 "보험학과에 입학해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험 분야에 관심이 갔고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 관련 대외활동을 하면서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시야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신귀중 자전거 조립 직종 금상 수상



지난 8일 개최된 2021년 38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한 진안군 지체장애인협회 신귀중 팀장이 자전거 조립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총54개 종목에 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전국 9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자전거 조립 경기는 11일 목요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제6경기장에 치러졌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직종별 1위에 입상한 선수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신귀중 팀장은 전북도 대표로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전춘성 군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룬 신귀중 선수에게 감사하며, 장애인들이 편견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영생교회, 전주대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는 지난 14일 전주영생교회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설립자인 전주영생교회故 강홍모 목사는 6.25전쟁이 끝난 뒤 학생들을 복음으로 품고 양육하기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해 학교법인 구 영생학원을 세웠다.

이번 장학금은故 강홍모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발, 각 100만원을 지급했다.

전주영생교회 김동원 목사는 "故 강홍모 목사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교회와 학교를 설립해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대학교가 글로벌 리더를 세우는 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하나님의 뜻으로 영생학원과 영생교회를 설립한 강홍모 목사의 뜻을 기억해 기독교 명문사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겨울나기 연탄 1만장 기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은 15일 전주시 완산구 교동 일원에서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1만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는 윤방섭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의원 30여명과 전주연탄은행 관계자 10여명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우리 이웃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탄방울로 훈훈한 온기와 마음의 정을 전했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연탄은 누군가에게 추억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생존의 에너지로 쓰이고 있다"면서, "이른 한파로 고심에 깊어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가 보태는 손길로 한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이서농협, 독거노인·조손가정 반찬나눔 봉사

이서농협(조합장 송영욱)은 김장철을 맞이해 지역 독거노인과 조손가정을 위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서농협 부녀회원, 임직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김장김치를 직접 만들어 지역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서농협은 봉사 참여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펼쳤다.

송영욱 조합장은 "김장김치 장만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주대, TRIZ 전국경진대회 12팀 본선 발표 참여

전주대학교는 LINC+사업단 주관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이론(TRIZ)을 적용한 2021 TRIZ 전국경진대회를 지난 13일 온라인(Zoom)으로 전국 대학생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지난 2015년부터 창의문제해결능력의 배양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개최, 올해 7회째로 코로나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2개팀이 참여, 확장 체계형 말뚝 개발의 문제점 해결을 제시한 부경대학교의 부플레이스팀(발표자김단)이 대상(전주대학교 총장상을)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졸업작품 전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15일 비전대 뉴테크SI실에서 2021년 졸업작품전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을 소개하고, 8개 학과 17명의 학생 등 10개의 동영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제작된 동영상을 대상으로 심사를 개최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전원 외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비롯한 10개의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학생들에게는 2백만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장은성 기자